

# 일본 속 ‘외국’에서의 팬데믹

정근주 \_ 호쿠세이가쿠엔 대학 교수

## 들어가며

몇몇 일본 관련 관광 안내서에 홋카이도는 ‘아시아의 유럽’이라 소개되기도 하고, 타지방 사람 중에는 홋카이도를 ‘일본 속의 외국 같은 곳’이라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그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광활한 대지에서 나오는 자연적 특색, 겨울의 설경과 파우더 스노, 한여름에도 비교적 덜 습한 기후적 장점 등은 도쿄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홋카이도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본 속 ‘외국’ 같은 기대감에 부응하는 상품을 가지고 홍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관광 마케팅에도 이용하고 싶은 ‘외국’적인 홋카이도는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외국’화 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폐쇄적인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 하에서 더욱더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샷포로 거주자의 삶을 소개하며, 팬데믹 하의 폐쇄감(閉塞感)과 중지된 한일 인적 교류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 신선한 ‘외국’ 홋카이도

현재 재직 중인 대학에 오기 전까지 삿포로에는 출장으로 한 번 가본 것이 전부였고, 지인도 없었으며 새삼 관광 안내서를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유럽이니 외국 같다느니 하는 정보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에게 있어 일본은 곧 도쿄였던, 편협한 감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17년간의 도쿄 생활 후, 2016년 처음 삿포로에 부임했을 때는 치열했던 대도시에서의 삶에 비해 하늘과 바람이 느껴지는 일상이 웬지 어색했던 기억이 있다. 이 글을 쓰게 되면서 문득 그해 부임하자마자 대학 소식지에 신입 교원의 인사 글을 게재했던 일이 생각나서 6년여 만에 다시 꺼내어 보곤 헛웃음을 지었다. 당시 삿포로 생활에 대해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는 기분이 들고 때로는 마치 말이 통하는 다른 외국에 온 느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매우 진부한 인사말이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썼는데, 그때 필자는 이미 ‘외국’이라는 어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느낌을 그다지 갖지 않게 되었던 필자에게 삿포로는 여러모로 좋은 의미에서 신선하게 느껴졌다.

홋카이도는 메이지 정부 초기 법령인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에 의해 현재의 행정구역명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이누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차별적 의미에서 ‘에조치(蝦夷地)’, 즉 ‘이민족이 사는 땅’이라 불린 곳이었다. 혼슈(本州) 사람들이 홋카이도에 가지는 이국적, 타자적 공간 인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혼슈로부터의 유입 인구 급증과 함께 홋카이도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부임 초기에 비해 점차 업무가 많아지면서 하늘과 바람을 느끼는 횡수는 줄어갔지만,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적당한 규모의 지방 도시이자 덜 배타적인 ‘외국’에서의 삶은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 삿포로에서 팬데믹을 맞다

“아무래도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같은 삿포로에 거주하면서도 2년 만에 겨우 만난 H 선배 교수의 한마디에 “그렇죠? 저도 그래요!”라고 단번에 맞장구를 쳤다. 코로나19 이후 삿포로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라면 어떤 심정인지 이내 공감할 수 있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치관이나 인생 계획이 달라진 경우가 어디 해외 거주자뿐이라. 또한 일본 거주자라면 모두 동병상련이겠지 삿포로 거주자라고 뭐가 특별히 다를까 싶을 것이다. 그러나 도쿄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아니 적어도 혼슈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고립감의 정도는 꽤 달랐을 것이다.

삿포로 시민들이 국제공항으로 이용하던 신치토세 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실질적인 이용이 중지된 상태이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020년 3월에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지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재개된 적이 없다. 물론 다른 지방 도시들의 공항들도 국제선 또는 한일 간 운항이 중지된 상태였지만, 나고야를 잇는 주부국제공항은 운항을 재개했고, 삿포로보다 인구가 적은 후쿠오카의 한일 간 국제선도 재개되었는데, 신치토세 공항만은 굳게 닫힌 채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입국 조치 강화 정책과 함께 거주 외국인들의 고립감도 심화했다. 나리타나 간사이공항을 이용해 한국을 갈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일본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방침 때문에 바로 국내선을 타고 삿포로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멀어도 혼슈에 거주했다면 장시간 렌터카나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시도하겠는데, 동떨어진 큰 섬 홋카이도 거주

자들은 그것도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나리타나 간사이공항으로 들어가 그 주위에서 격리기간 동안 숙소를 별도로 구해 체재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조직에 속해 있는 처지로서 왕복 최소 5주 동안 거주지를 이탈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혼슈가 아닌 지방에까지 교통수단을 고려해 줄 여유는 없다는 듯한 일본 정부의 입국 관련 방역 대책과 무관심 속에서, 하늘길이 닫힌 팬데믹 상황의 훗카이도는 그야말로 일본 속의 '외국'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앞서 말한 H 선배 교수는 퇴직 후에도 삿포로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삶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속에서의 폐색감을 경험하고 은퇴 생활을 재설계하게 되었다. 11월 들어 일본 입국 후의 행동 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번 연말에야말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신치토세 공항 국제선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필자와 동료들은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 우려로 인해 12월부터 입국 및 격리 조치가 재강화되어, 외국인으로서의 폐색감을 다시금 곱씹게 됐다.

## 중지된 한일 간 대학생들의 인적교류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외국인 신규비자 발급 중지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각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나 유학생을 위한 수업 등은 실질적으로 중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생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 및 관련 과목들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출국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국에서 입국을 허가하면 갈 수는 있지만, 대학의 정규 과목 등에는 대학 측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한 이유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과목인 경우, 도항 자체를 중지하기로 한 대학들이 많으며, 위기관리 방침이 비교적 엄격한 편인 필자의 소속 대학에서도 관련 과목 등이 전면 중지됐다. 무리해서 책임자가 인솔한다고 해도 앞에서 말한 대로 삿포로는 국제선 직항이 없으며

www.kci.go.kr

로, 일본 귀국 후 다른 지역에서의 격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사가 어렵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는 ‘해외사정’이라는 과목이 있다. 방학 기간에 해외의 지정된 대학교에서 단기 어학 및 문화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담당 교원의 평가 및 지도하에 학점을 부여하는 학부 정규 과목인데, 한국어 부전공을 위해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인원 제한이 있어서 매년 전체 성적순으로 선발된 12~14명만이 최종적으로 이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한국어 과목 전체 수강자 수가 약 360명이므로 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인솔자가 감당할 수 없다. 한국으로 가는 ‘해외사정’은 매년 8월에 실시하는데, 2020년에는 국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었다. 그때는 설마 2년 연속으로 중지될 줄은 몰랐으므로 학부생 중에는 다음 해에 가고자 온라인 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2021년, 해가 바뀌고 4월 초에 ‘해외사정’ 이수 희망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수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신청을 염두에 두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은 코로나19 이전에도 22명이 최대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28명이 zoom으로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했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해외 도향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학부모들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숫자였다. 아마도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두세 배는 되었을 것이다. 기쁜 마음이 드는 한편, 올해도 해외 도향은 하지 못하며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는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전하자마자 실망하는 학생들의 zoom 퇴실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이 과목에 신청한 수강자 수는 2명뿐이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 하는지 학부생들의 열망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본 과목 이수자

수는 한국어 부진공자 수에 직결되므로 향후 세미나(seminar) 수업 수강자 수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2021년도는 필자의 대학교에서 한국 및 한국어 관련 과목 수강생들이 가장 많은 해였는데, 동시에 인기 과목이었던 ‘해외사정’ 이수자가 가장 적었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연도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학부생들을 통해 본 팬데믹 이후 한국에 관한 관심도 양상은 ‘한국어와 문화’라는 과목 수강자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반 문화 관련 수업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어로 된 장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수가 가능한 교양 선택 과목이다. 부임한 첫해는 수강자 수가 7명뿐이었는데, 다음 해인 2017년부터 늘더니 28명, 25명, 24명으로 매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2020년에는 4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42명이었다. 또한 이번 학기 영문학과 2학년 한국어 수업 중에,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지 가볍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다. 결과는 18명 중 11명이 한국이라고 대답했다. 영문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권을 가고 싶은 학생이 다수일 것으로 추측했는데, 아이들의 선택은 한국이었다. 아무리 자유롭게 케이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도,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욕구가 한국인 교원으로서 버거울 만큼 크게 느껴지는 나날이다.

## 나오며

지난 10여 년간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도 상호 인적 교류는 지속되었다. 팬데믹 하의 삿포로에서 외국인으로서의 폐색감과 급감한 인적 교류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지만, 주지하다시피 대중문화 및 식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시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에 가지 못하는 보상 심리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로도 표출되면서 삿포로의 한국 음식점

www.kci.go.kr

도 팬데믹 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에는 없었던 대형 한국 마트도 생겼는데, 초기에는 인파가 몰려서 입장하는데 인원을 제한해야 할 정도였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가 『한국 민중을 바라보는 것(韓国民衆をみつめること)』에서 언급했듯이 진보 지식인들조차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이후, 겨우 ‘한국 민중이 보이기 시작’했던 전후(戰後) 일본 사회의 한국 인식을 떠올리며, 연구자로서 격세지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 본다. 팬데믹 시기에 응집된 일본 시민의 한국행에 대한 욕구와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향후 한일관계와 상호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 과제로 삼기로 하고 삿포로에서의 현지 보고 글을 마친다.